

## '구인난' 미군, 이주민 대상 모병 작전



▲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위치한 미군 모병소 앞을 사람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군이 합법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병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전날 미군이 군대에 지원하면 시민권을 주는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경로)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민자들을 모시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내 젊은 층에서 입대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져 작년 미군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모병 실적을 거두었다. 육군은 당초 6만 명 모병 목표를 세웠으나 4만5천 명에 그쳤다. 해군과 공군도 모병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젊은 층이 군대에 익숙하지 않고 비슷한 교육과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 일자리에 더 끌리며 부상이나 사망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합법 이주민의 입대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 미군은 합법 영주권자가 기본 군사 훈련을 받으면 신속하게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이 프로그램을 거치면 신병들은 신속하게 미국 시민권 시스템에 등록되고 기본 훈련을 시작하면 필요한 서류 작업과 검사 등을 포함한 절차가 시작된다.

이민자 대상 모병에는 추가 보안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자원자들의 신청서 작성을 지원해야 하는 등 노력이 더 소요된다.

## 20여 년 사이 음주량 '깡충' ... 증류주 소비 급증

미국인들의 음주량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 소비량이 60%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연합뉴스'가 정치매체 더힐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NIAAA)는 최근 낸 '1인당 알코올 소비 추정' 보고서에서 미국인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을 분석했다.

2021년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51갤런(약 9.5L)이었다. 이는 포도주와 맥주, 증류주를 모두 합친 것이지만, 물이나 다른 원료를 빼고 에탄올만 계산한 양이다. 전년인 2020년(2.44갤런)보다는 2.9%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019년(2.38갤런)보다는 5.5% 늘어 2년새 증가율로 따졌을 때 1969년 이후(1967년 대비 5.9%) 최대 폭을 기록했다. 26년 전인 1995년 2.15갤런(약 8.14L)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6.7% 많다.

특히 증류주의 경우 1995년 0.63갤런에서 2021년 1.01갤런으로 60.3% 소비가 늘었다. 포도주는 0.29갤



▲ 미국의 증류주 소비량이 1995년 대비 60.3% 늘어났다. 사진=shutterstock

런에서 0.44갤런으로 51.7% 늘었다. 같은 기간 맥주만 1.24갤런에서 1.06갤런으로 14.5% 줄었다.

미국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음주량이 늘어난 원인으로 여성 음주 증가, 주류업체 광고 급증 등이 지적됐다. 코로나 사태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팬데믹 봉쇄 기간 술 판매점은 문을 열 수 있는 사업장으로 지정됐고, 배달까지 가능해지면서 술을 즐기기에 알맞은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 학교들 앞다퉈 AI 총기 탐지기 설치

최근 미국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학생이 늘면서 학교들이 잇따라 인공지능(AI) 탐지기를 도입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가 워싱턴포스트(WP)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1999~2017년 미국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연평균 11건이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이 수가 급격하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다인 46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교내 총기 사건이 잇따르자 미 전역에서 많은 학교가 무기 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AI 스캐너 제조업체인 이볼브사에 따르면 AI는 한 시간에 수천 명을 탐지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주머니나 배낭 안을 비울



▲ 한 학교에 설치된 AI 스캐너를 학생들이 통과하고 있다. 사진=edwee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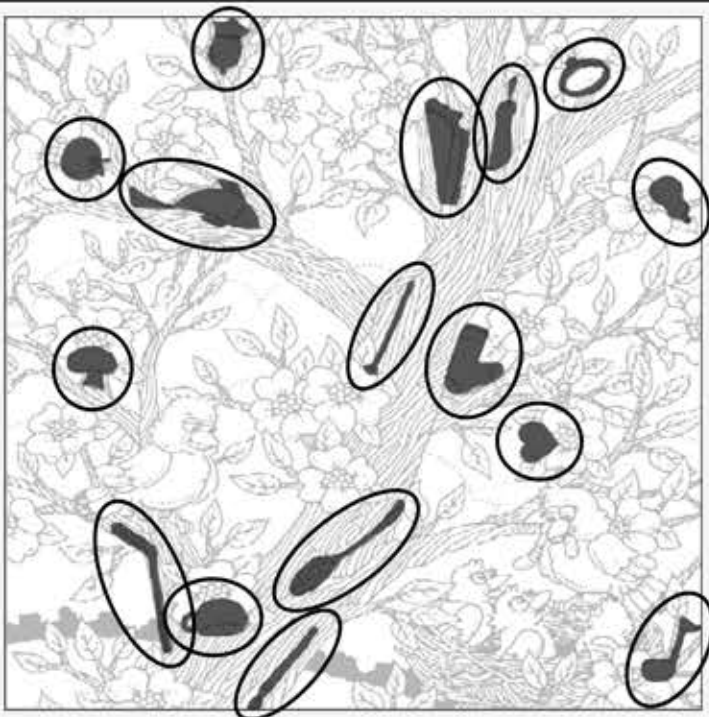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같은 보안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탐지기 도입 등은 해결책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며, 학생들과 깊고 신뢰하는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탐지기가 학교 내 무기 반입을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적어도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메

클런버그 교육구는 관내 170여개 학교에서 2021학년도 1학기에 총기 몰수 건수가 21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AI 스캐너를 도입했다. 스캐너 도입 이후 한 학년도 동안 학교 내 총기 적발 건수는 6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교육 당국은 전했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날말퍼즐 정답

	1 등	본		2 복	3 근		
	덜				4 두	개	5 골
6 현	미	7 경		8 천	운		탕
재		9 보	10 호	자			
			11 신	문	12 사		13 시
14 이		15 기	술		16 연	17 대	기
18 유	행	어				조	
		19 코	스		20 종	영	